

법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성관련법 개정방향

생물학적 보호차원 아닌 제도적 평등강화 쪽으로

〈법과사회〉에 게재된 4편의 논문 통해 주장

현행 여성관련 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 4편이 발표됐다. 그간 여성문제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제도 완비에 치중, 총체적 접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속에 누락되었던 부문을 재점검(법여성학,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 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4편의 논문은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학), 조은(동국대, 사회학), 최은순(변호사),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등이 집필한 것으로 〈창작과 비평사〉가 간행하는 반년간 〈법과 사회〉 제8호에 실렸다.



▲고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운동에서 독립된 법여성학 필요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이은영 교수는 우리나라 법여성학이 총론적 측면보다 각 제도의 남녀차별을 지적하는 각론적 측면에서 전개돼 왔다는 전제 아래 “이제는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조했다.

가족법,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법률관계 형성되어야

가족법을 사회학적 입장에서 비판한 조은 교수는 기존의 가족법 개정의 목적이 가부장제 타파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광의의 가족관련법,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법률관계 형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최근의 가족사

적 기반은 흔들리지 않지만 전통가족에 비해 친족 관계망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수의 가족 관련 문제들이 개별가족 선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어린이 부양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약한 문제점과 독신여성(노인)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현상,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탁아문제와 가족의 출산 및 성행위 규제와 여

인간으로 바라보며 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엘림 연구원은 ‘여성고용노동법’이라는 논문을 통해 “여성노동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현행 여성보호규정을 완화·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현행 노동환경의 변화없이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은 결코 남녀평등을 이루어낼 수 없을

●우리의 생각●

사관학교 문도 열려야

여대생 ROTC 허용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여대생들에게 ROTC지원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예비 장교훈련단, 학도군사훈련단을 의미하는 ROTC가 창설된지 25년 만에야 여성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기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니 이를 반기고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대졸여성들이 여군장교 시험에 지원하는 수가 전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군조직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이 우수한 학력과 건강한 신체로 주어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감당해 내고 당당한 군부의 지도자로 탄생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군부내에서 여군들이 해내는 역할의 비중으로 볼 때에도 이들이 보다 본격적인 군인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더라면 더욱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ROTC뿐만 아니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도 속히 여성들에게 개방하기를 촉구한다. 여성에게도 입학할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문제로 보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자화장실과 여자용 기숙사 시설 정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우수한 여성들의 지원을 외면한다는 말인가. 이는 여성에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 국가의 군수뇌부에 여성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되었으며 여성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지금은 여군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 대령에 불과하고 여성장성을 보고있지 못하는 것이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군의 현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도 군수뇌부에 오를 수 있는 준비로 정규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 남성 사관생도도 여성과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이미 경찰대학에서 그 적응성과 우수성을 증명해 보인 여성들이다. 국가의 간성을 키운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이은영 교수는 우리나라 법여성학이 총론적 측면보다 각 제도의 남녀차별을 지적하는 각론적 측면에서 전개돼 왔다는 전제 아래 "이제는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여성학은 법률가들 자신보다 비법률가들의 여성운동에 자극받아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여성학은 ▲남성법학이 주도하는 인간상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일관된 청사진이 부족하며 ▲법여성학이 만들려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지 못한 취약점을 가지게 됐다. 사회적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해석학적 연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상적 측면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인 셈.

취약점 발생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우리의 법학 풍토가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의 기반이 약해서 여성문제를 수용할 만한 법사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도 법여성학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김 교수는 "법여성학의 발전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법학의 포용성을 높여 소외된 대중을 법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온다"며 여성운동에서 독립된 법여성학 정착의 필요성을 강

가족법을 사회학적 입장에서 비판한 조은 교수는 기존의 가족법 개정의 목적이 가부장제 타파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광의의 가족관련법,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법률관계 형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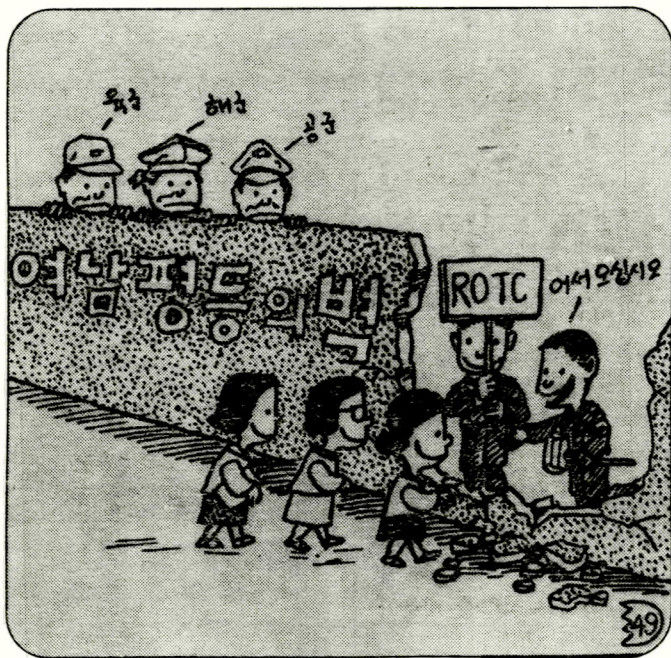
조 교수는 "최근의 가족사회학은 가족을 이데올로기의 구성물로서 더 중시하며, 가족과 사회 또는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족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한 후 사적 가족의 개념에 기반을 둔 현행 가족법의 한계를 한국의 실상을 들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소가족화,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가족이 혈연

관계가 개별가족 선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어린이 부양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약한 문제점과 독신여성(노인)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현상,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탁아문제와 가족의 출산 및 성행위 규제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어 의료법과 사회복지법, 교육법과 고용법 및 탁아법 등의 연관성 속에 가족법 개정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과 형사법'이라는 주제를 기고한 최은순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여성을 정조와 모성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



논문을 통해 "여성노동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현행 여성보호규정을 완화·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현행 노동환경의 변화없이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은 결코 남녀평등을 이루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모성기능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YMCA

텔레비전 모니터 훈련 과정 모집

서울 YMCA에서는 제 13기 텔레비전 모니터 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된다.

강사로는 박명진 교수(서울대, 신문학),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방), 강상헌 교수(동아대, 신방), 이영자 교수(성심여대, 사회학) 등의 학자와 오명환 MBC 편성국 부국장, 김동원 씨(푸른 영상 대표), 이세용 언론노동조합 국장 등 모두 19명이 나선다.

강의 장소는 YMCA 친교실이며 회비는 5만5천원. TV 모니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일백명을 수강자로 선정한다. 문의 735-1618

근로여성협의회

재정난 등 어려움으로 아쉬운 해산

여성노무사 등 전문가 참여, 기대 불구 1년만에 해산결의

여성노동운동 분야에서 경륜을 쌓아온 여성노무사 등이 주축이 되어 생산직 사무직 근로여성들을 상대로 한 상담과 법률구제활동, 취업알선 등 여성근로자 권익활동을 위해 의욕에 찬 출발을 했던 <한국근로여성협의회>가 지난 8월 10일자로 해산되었다.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던 근로여성협의회는 1년간의 법률구제활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난과 단체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의 어려움이 겹쳐 10일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근로여성협의회는 여성노동

운동에 경험이 있는 전 노총 여성간부를 비롯 노동부 등에서 법률적 실무지식을 고루 갖춘 여성행정가, 노무사 등 5~60명이 91년부터 준비모임을 통해 사업구상을 거쳐 기금모금출판회를 갖는 등 산고를 겪고 출발, 여성계에서 기대를 모았던 단체다.

1년간 재정난과 전문인력요원이 부족한 속에도 노사갈등을 겪거나 산재문제를 호소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상대로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서류작성방법까지 도움을 주고 노동위원회에 제소시는 끝까지 재판처리 결과까지 주시하는 등 근로여성의 권익보호에 일조를 해왔다.